

한국을 사랑했던 새 복자 탄생: 알바로 델 포르티요

전 세계에서 모인 200,000 명의 신자들이 새 복자 알바로 델 포르티요의 시복식에 참여하였다. 시복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간을 통하여 오푸스데이의 회원들과 협력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.

2014-9-27

마드리드, 2014년 9월28일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papa-francisco-el-beato-alvaro-amo-y-
sirvio-a-la-iglesia-con-un-corazon-
despojado-de-interes-mundano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papa-francisco-el-beato-alvaro-amo-y-sirvio-a-la-iglesia-con-un-corazon-despojado-de-interes-mundano/)
(2026-3-31)